

海印寺 所藏冊板의 板刻處에 관한 연구

金 永 善*

〈 목 차 〉

I. 緒論
II. 寺刹板
III. 官版

IV. 私家版
V. 結論
Abstract

I. 緒 論

法寶寺刹로 알려진 海印寺는 再雕大藏經板¹⁾ 외에 高麗時代부터 1950년대末까지 오랜 기간동안 板刻된 冊板²⁾ 188種 10,762板³⁾을 보존하고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冊板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이다. 이들 冊板은 海印寺에서 板刻한 것 뿐만 아니라 他寺刹 및 官廳과 私家에서 板刻한 것들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인출하여 왔다.

海印寺에 소장된 冊板 중 再雕大藏經板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 외의 冊板들에 대해서는 所藏板을 조사하여 書名, 卷數, 板式, 板의 狀態 및 板數 등을 밝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1) 八萬大藏經板, 海印寺大藏經板, 高麗大藏經板, 再雕大藏經板, 高麗大藏都監板大藏經, 高麗高宗官板大藏經, 江華經板高麗大藏經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2) 海印寺寺刊鑿板, 海印寺寺刊藏經板, 海印寺雜板 등으로 호칭하나, 寺刊板이 아닌 것과 文集板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포괄하는 의미인 冊板으로 표기하였다.

3) 朴相國, 全圖寺刹所藏木板集(서울:文化財管理局, 1987), p. 375.

힌 것으로 1937년에 조사한 144종⁴⁾, 1943년에 조사한 100종⁵⁾, 1967년에 조사한 129종⁶⁾, 1980년에 조사한 188종⁷⁾ 등이 있으나 그 종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장 조사의 범위를 넘어 補板과 雜板에 일부에 대한 佛敎文獻學的 연구⁸⁾, 129종에 대한 解題⁹⁾, 139종에 대한 개요와 經板의 내역¹⁰⁾, 儒家文集 17종에 대한 연구¹¹⁾ 등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冊板의 상당수가 殘板이고 板에 따라서는 題名이 없기 때문에 書名 및 板數, 刊行年 등의 추정을 달리하고 있어 연구자 상호간에 서명과 종수도 일치하지 않고 판각처가 명확하지 않아 이 분야 연구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규명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것 등, 종래에 발표된 것을 補正하여 타처에서 판각하여 海印寺로 옮겨진 책판만을 대상으로 그 板刻處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간행 참여자, 현존 책판, 冊板目錄, 藏書目錄 등을 조사하였으며, 정확한 간행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形態書誌學 방법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再雕大藏經板 및 海印寺에서 板刻한 것, 자획의 마멸 및 훼손으로 인하여 판각처의 추정이 불가능한 것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4) 崔凡述, "海印寺寺刊藏板目錄," 東方學誌, 第11輯(1970), pp. 1-93.

5) 和山博重, "伽耶山海印寺經板について," 文獻報國, 第10卷3號(1944.3), pp.92-103. 10卷 4 號(1944. 4), pp. 142-158.

6) 徐首生, "海印寺의 寺刊 藏經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46집(1969. 12), pp. 626-633.

7) 朴相國, 前掲書, pp. 375-460.

8) 大屋徳成, "朝鮮海印寺經板攷," 東洋學報, 第15卷 3號(1926. 4), pp. 285-362.

9) 藤田亮策, "海印寺雜板攷," 朝鮮學報, 第138輯-140輯(1991, 1-7), pp. 1-274.

10) 徐首生, "海印寺 寺刊藏經板 研究," 國語敎育研究, 第 5輯(1973), pp. 1-53.

11) 임지룡, "해인사 소장 유가문집 목판용 배달말학회가 찍어낸 경위에 대하여," 배달말, 제11집(1986), pp. 235-252.

II. 寺 刹 板

1. 群生寺

群生寺住持重大師 探古가 施財하여 1214년 10월에 刊板한 《金剛般若波羅密經》은 無求居士 周通富가 書寫하고 符仁寺大師 淸守 孝如가 판각한 것이다. 群生寺에 관한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고, 符仁寺는 初雕大藏經을 보관하고 있다가 불타버린 절로서 大邱市 東區 新武洞에 위치하고 있으며, 夫人寺, 夫仁寺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鳩摩羅什이 譯한 이 經의 앞에는 金剛經啓講, 淨口業眞言, 發願文 등이 부기되어 있고, 末尾에는 般若眞言, 金剛心眞言 등이 부기되어 있어 당시의 密敎 신앙과 淨土신앙 등을 알 수 있다.

2. 下鋸寺

下鋸寺는 고려시대에 伽耶山에 있었던 사실¹³⁾만 알 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소재지와 창건 시기는 알 수 없다. 下鋸寺板은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과 이와함께 판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大方廣佛華嚴經隋疏演義(如來出現品)》 2종이 있다.

《大方廣佛華嚴經疏》는 澄觀의 《華嚴經疏》에 淨源이 註釋을 한 120卷 중 권80부터 권83까지 수록된 《如來出現品第三十七》을 大字로 새긴 것으로 4권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3의 12장 뒤에 간기가 있다. 板心에 새겨진 刻手 중 7명이 再雕大藏經의 작성에 참여하고 있어 그 활동시기를 살펴보면 이 책의 간기에 나타난 辛丑은 高宗 28년(1241)으로 확인¹⁴⁾된다.

《大方廣佛華嚴經隋疏演義(如來出現品)》는 刊記는 없지만 상기한 《大方廣佛華嚴經疏》의 4권 첫장의 뒷면에 이 책의 題箋이 새겨져 있고 경판의 형태가 서로 같은

12) 大邱大學校博物館, 符仁寺址一次發掘調査報告書(大邱: 同館, 1989), p. 8.

13)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 卷末 刊記, 龍壽寺社堂比丘 玄機 主張/下鋸寺道人 天寧 戒藩 勸勸/道人 聞契 校勸/辛丑(1241)五月 日 伽耶山下鋸寺 雕造

14) 鄭東樂, “江華經板 高麗大藏經과 下鋸寺,” 고령의 古문화를 찾아서 (합천: 이산각연구소, 1998), p. 54.

4 圖書館學論集(第 28輯)

것으로 볼 때 동시에 판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澄觀이 80華嚴의 疏를 저술하고 門人 등을 위하여 그 疏에 義을 기술한 것이다. 경판은 40卷本, 즉 20卷上·下本 중 卷第一의 上·下本으로 여겨지며 義天의 續藏經 원본과 글자 양식이 유사하여 覆刻本은 아니고 模刻本으로 생각된다.¹⁵⁾

3. 新荷寺

1278년에 간행한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¹⁶⁾은 新荷寺典香 正玄과 京山府副使 殿中內給事 田盧가 함께 齋願하여 新荷寺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찰에 관한 사료는 찾을 수 없다. 이 책은 佛陀波利가 譯한 것으로 卷末題에 따라 《佛說長壽明經》으로도 칭하며, 全郭이 22.5 × 66.3 cm로 해인사에 소장된 雜板중 最大의 卷子本板이다.

4. 仁興社

仁興社는 慶北 達成郡 花園面 川內洞에 있던 廢寺址가 仁興社址로 밝혀졌는데¹⁷⁾ 처음에 仁弘社였던 것을 一然이 머물던 1274년에 忠烈王이 즉위하면서 仁興社로 賜額하였다. 王亂 당시에 폐사되어 인접한 대찰인 海印寺로 유물들이 옮겨진 것으로 추측¹⁸⁾하지만 1492년에 판각한 《心經附註》가 海印寺에 소장되지 않은 것을 보면 책판 모두가 일괄적으로 옮겨진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仁興社에서 옮겨온 《人天寶鑑(1290)》의 卷下 41장의 뒷면에 1863년에 海印寺에서 補刻한 《高王觀世音經》의 (5, 6)장이 새겨져 있으므로 1863년 이전에 이미 海印寺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仁興社板은 《歷代王朝年表(1278)》 《大悲心陀羅尼經(1293)》과 一然의 문도인 禪隣이 주관하여 仁興社에서 刊行한 것으로 추정¹⁹⁾되는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15) 藤田亮策, 前掲論文, p. 58.

16) 同書, 卷末, 誌. ...與新荷寺 典香正玄 同齋刻板 印施無窮者/ 至元十五年五月 日誌/ 棟梁道人 正玄/ 京山府副使 殿中內給事田盧

17) 李鍾恒, "傳 仁興社址 三層石塔 移基에 관한 報告" 慶北大論文集, 4(1960), pp. 658-661.

18) 蔡尙植, 高麗後期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91), p. 158.

19) 上掲書, p. 171.

(1275) 《人天寶鑑(1290)》이 있다.

《歷代王朝年表》²⁰⁾는 中國과 그 주변 민족에 의해 건설된 諸國의 역대 왕명과 연호를 정리하여 수록한 것으로 마지막 부분에 新羅, 高句麗, 百濟, 高麗의 순서로 왕명과 재위년수를 밝히고 있어, 高麗時代의 年表로서 중요한 자료이지만 본래의 명칭은 알 수 없다. 2판 4장의 殘板이며 1장에 3단씩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 장은 1단으로 되어 있다.

《大悲心陀羅尼經》²¹⁾은 折本式 2판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용은 ‘大悲心陀羅尼啓請’으로 시작해서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神妙章句’의 긴 이름이 이어져 나오고 끝에 陀羅尼經으로서 觀世音菩薩白佛言 이하 16행이 있는데 일반의 ‘大悲心陀羅尼經’ 1권과는 다른 略經이다. 이것의 본래 제목은 《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이며 흔히 《大悲心陀羅尼經》, 《千手(心)經》 등으로 줄여 부른다.²²⁾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²³⁾은 觀世音菩薩의 救世願力과 無量方便力を說한 것으로 현세이익적 현실구원적, 실천적 성격이 두드러진 내용으로 觀音信仰의 根本經典이다. 이 책에는 〈觀世音菩薩六字大明眞言〉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人天寶鑑》²⁴⁾은 1279년에 宋의 商人 馬都綱이 가져와서 전하고 理淵이 우리나라에 유통시킨 것을 1290년에 禪隣이 복각한 것²⁵⁾으로, 刻手인 大直 등은 《大悲心陀羅尼經》의 각성에도 참여하였다. 이 책은 선을 닦는 이들이 선만을 주장하는 폐단을 경계하고 옛 사람들은 禪과 律, 그리고 유교와 도교까지도 널리 터득하였음을 밝히고자 귀감이 될만한 일들을 曇秀가 편집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一然과 그의 門道 禪隣과 仁興社가 간행에 관여한 것들로 그 내용으로 볼 때 13세기 후반기에 仁興社가 현실적 구원과 실천적 성격을 띤 觀音信仰을 표

20) 同書, 刊記. 至元十五年(1278) 仁興社開板

21) 同書, 刊記. 至元三十年(1293)癸巳正月日 仁興社開板

22) 蔡尙樞, 前掲書, p. 170.

23) 同書, 刊記. 至元十二年乙亥(1275)二月日 山人 禪隣寫

24) 同書, 跋. 至元二十七年庚寅(1293)七月八日 包山 禪隣題

25) 백련선서간행회 역, 人天寶鑑(서울: 장경각, 불기 2536) 해제에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해졌는지의 여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하나 이와같이 책판이 현존하며 그 전래 경위는 同書, 跋 ‘至元十六年己卯(1279) 宋商 馬都綱發 此人天寶鑑集一部 來請天台講元禪師 自因齋訖 用此錄編施 觀識長老理淵 取來傳布 行于海東’에 의하여 알 수가 있다.

방하고 이와 관련된 陀羅尼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靈通寺

靈通寺는 경기도 개풍군 영남면 용흥리에 소재한 사찰로 顯宗 18년(1027)에 창건하였으며 폐사시키는 알 수 없다.

1331년에 靈通寺에서 판각한 《大方廣佛華嚴經觀音知識品》²⁶⁾은 5권 10장의 小本인데 앞부분 3권 6장은 일실되었고 7장부터 10장까지 2판만 보존되어 있다. 권말에 《大方廣佛華嚴經卷第十六》이라고 되어 있어 40華嚴의 卷第十六인 《觀音知識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本經에 題注가 덧붙여져 10장의 小卷子本으로 된 이 책은 持誦용으로 몸에 지니고 다니기 편리하도록 만든 것이라 일반인들에게 실천신앙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저작된 것이다. 이 절에 있던 《華嚴經》板을 世宗 5년(1423)에 옮긴 기록²⁷⁾이 있으나 동일한 판인지는 알 수 없다.

6. 月光寺

月光寺는 海印寺와 가까운 加那面 月光里에 그 터만이 남아있는 月光寺로 추정된다. 月光寺典香 普應大師 忍源이 施主를 하고 海印大師 向如가 書寫한 《三十八分功德疏經》²⁸⁾은 《大方廣佛華嚴經觀音知識品》을 저작한 두 달 후인 1331년 12월에 만들어진 僞經으로서 영험과 공덕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기층사회의 독자적인 형태의 전통적 민간신앙을 화엄종의 염불신앙에 수용 또는 결합시키려 한 의도에서 저작된 것이다.²⁹⁾

《三十八分功德疏經》은 靈通寺에서 1331년에 간행한 《大方廣佛華嚴經觀音知識

26) 同書, 卷末…越己巳冬 寓靈通寺普勤同住諸宗長 閻院同頌 募工繕梓 廣施無窮 所冀… 月光典香普應大師 忍源 識…至順二年(1331)十月日 寓出現盤龍社佛龕刻 海印沙門 木剎向如體元 沐手 焚香題

27) 世宗實錄 卷二十二 五年癸卯十月

傳旨留後可曰 金沙寺眞言大蔭經 靈通寺華嚴經等板子及 雲巖寺金字三本華嚴經一部 金字單本華嚴經一部等 水站船隻載送

28) 同書, 末. 至順二年(1331)辛未冬十二月日 海印典梵覺海大師 木庵體元 題

29) 蔡尚植, 前掲書, p. 218.

品)과 鷄林府에서 1334년에 간행한 《白花道場發願文略解》《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와 함께 體元의 跋이 있다. 이 4종은 모두 海印寺의 住持 木庵體元이 그의 兄인 普應大師 忍源을 위하여 간행한 불경들로 觀音信仰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이다. 體元은 법호를 木庵 向이라고도 하며 覺海大師의 謚號를 받았다.

이들 4종류는 刻板의 장소가 전부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海印寺에 모두 모이게 된 것은 體元의 노력으로 추측³⁰⁾하기도 한다.

7. 道成庵

道成庵은 지금의 서울 三角山에 있던 사찰로 貞懿公主의 願刹³¹⁾이었다.

이 절에 있던 《妙法蓮華經(1469)》은 金守溫의 跋이 적혀 있는 1판 2장만 海印寺에 남아있다. 그 跋³²⁾에 의하면 《妙法蓮華經》의 大字板이 江原道 蔚珍 井林寺에 있었는데 僻地인데다 오랜 세월이 흘러 看守하는 사람이 없어 破반수가 넘게 없어서 이 판을 修補하여 完板이 되게 만들어 三角山 道成庵에 그 판을 옮겨 놓은 것인데 이 판이 다시 海印寺로 옮겨진 것이다.

8. 石水庵

石水庵은 陝川郡 治墟面 羅帶里에 소재한 寺刹로 1499년에 《禪宗永嘉集》을 판각하였다. 이 해는 鳳栖寺에서 판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1년전이며, 이 책의 간행 참여자들이 鳳栖寺板 刊行에도 그대로 참여하였다. 즉, 刻手인 妙菴, 罔湛, 胤禎 3명 중 罔湛, 胤禎 2명과 大幹善인 燈谷和尚은 鳳栖寺板 간행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또한 法聰은 《牧牛子修訣》에, 學隱은 《牧牛子修心訣》과 《賢首諸乘法數》에, 覺林學了, 學隱은 《賢首諸乘法數》의 간행에 참여하고 있으며, 大施主子 敬心과 尙聰도 《高峯和尚禪要》의 간행에 참여하고 있다. 이 책의 간기에 기록된 竹衍과 罔珠 역시

30) 藤田亮策 前掲論文, p. 41.

31) 權相老 編 韓國寺刹全書(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79), p. 492.

32) 同書, 跋… 法華大字板在江原道蔚珍井林寺 地僻歲久 人無看守 逸過半 若臥來京洛 因是本而修補 之卽爲完板矣 公主卽命輪至三角山道成庵 刀其頑欠 使之如舊 并前新刊之板 置是庵 間遣人使跋 其後… 蒼龍己丑六月下辭 輔國崇祿大夫行中樞府知事 金守溫跋

《賢首諸乘法數》의 竹然과 《高峯和尚禪要》의 敬殊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9. 鳳栖寺

鳳栖寺는 陝川 伽耶山에 있는 사찰로 海印寺와 동시에 창건된 가장 오래된 암자이다. 1894년 중창당시 발견된 樑上舊記에 의하면 1495년 燈谷堂 學祖大師와 前曹俗寺住持 信文禪師가 함께 중창하였다. 이어 1539년에는 明儀 和尚이, 1578년에는 道尙 比丘가 化主가 되어 건물을 각각 重創하였으며, 1633년에 剱倫, 岩回, 德明和尚 등이 化主가 되어 重創 上樑하였다. 또한 海峯有璣(1707~1785)의 '鳳樓寺勸善文'³³⁾에도 重修사실이 나온다. 1800년경에는 法堂인 普光殿 扁額을 따라 普光庵이라고도 하였으며 1887년 전후에는 願堂 또는 願堂淨土社라고도 칭하였다.

鳳栖寺板은 1500년의 《牧牛子修心訣》 《蒙山和尚法語》 《賢首諸乘法數》 《禪宗唯心訣》, 1501년의 《高峯和尚禪要》 등 5종으로 모두 한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海印寺에서 1500년에 大藏經 印經을 하였기 때문에 인접한 鳳栖寺에서 燈谷堂 學祖의 주관하에 刊板된 것으로, 모두 禪宗에서 중시하는 내용이라 信眉이후의 臨濟宗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5종 외에 中宗 29년(1534) 6월 高敞 文殊寺에서 重鉸한 《法華靈驗傳》을 鳳栖寺에 留板³⁴⁾한 일이 있는데 이 經板의 행방은 알 수가 없다.

10. 長水寺

長水寺는 慶尙南道 安陰縣 智雨山에 소재한 사찰³⁵⁾로 海印寺의 末寺이다. 安陰縣은 지금의 咸陽郡 安義面 지역이며 高麗 顯宗 9년(1018)에는 陝州의 屬縣이었다.

長水寺板 《禪宗永嘉集(諺解)》은 天順 8년(1464)의 刊經都監板을 中宗 15년(1520)에 覆刻한 것으로 御定 口訣이 있으며 慧覺尊者 信眉 등이 諺解하여 어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모두 45판인데 刻手 5명이 板刻하였으며 민간인 48명의 시주로서 판

33) 海峯 有璣 '鳳樓寺勸善文' 好樓集(韓國佛教全書, 第9冊, p. 720.)

34) 尹樹泰 編 韓國書誌年表(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2), p. 49.

35) 新增東國輿地勝覽, 卷三十一 安陰縣 佛宇條. p. 545. 影印本

각된 것이다.

長水寺는 海印寺로 이전된 經板의에 英祖 1년(1726) 4월에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을 간행³⁶⁾하였고, 同王 33년(1757) 11월에는 《禪源集都序着柄》을 開刊하여 星州西 佛靈山 靑巖寺에 移錄³⁷⁾한 일이 있다.

11. 雙溪寺

雙溪寺는 忠淸南道 論山郡 可也谷面 中山里 佛明山에 있는 절로 麻谷寺의 末寺이며, 創建年代 및 創建主는 未詳이나 高麗 初期에 創建³⁸⁾하였다고 전해진다.

雙溪寺에 있던 책판은 1571년 豆永貞家에서 開刻하여 雙溪寺에 두었던 《佛說四十二章經》부터 1681년에 開板한 《佛說大報父母恩重經附胎骨經·大小涅槃經》에 이르기까지 14종이 海印寺로 옮겨져 보관되어 있다. 이들 중 刊記에 의하여 雙溪寺板으로 확인된 것은 9종이고, 5종은 雙溪寺에 있던 板이 甲寺와 海印寺로 분산된 것으로 추정되는 散板이다. 이 중에는 雙溪寺에 보관하던 私家板 3종도 포함되어 있다.

雙溪寺板이 완전하게 海印寺로 옮겨진 것들로, 金論番家 板刻하여 雙溪寺에 留板한 《禪宗永嘉集(說論)(1572)》, 水陸齋의 제반 의식절차를 요약한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4)》, 역대 선종 조사들이 法燈을 전한 法系를 기록한 語錄인 《景德傳燈錄(1614)》 등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것들은 雙溪寺에 있던 동종의 책판이 무분별하게 두 사찰로 분산되었다.

海印寺에 있는 《佛說四十二章經》에 수록된 蒙山和尚의 佛祖三經序에 의하면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僞山警策》 3종이 함께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海印寺의 《佛遺教經》은 《佛說四十二章經》과 마찬가지로 守邊의 註가 있고 板式도 동일하므로 동시에 板刻된 것을 알 수 있으나 《僞山警策》은 海印寺에는 없고, 甲寺에 1板이 보관되어 있다. 이들을 서로 비교해보면 서체와 판의 크기도 같고 '無界, 9行 15字, 註雙行, 內向黑魚尾'로 板式도 같아 1571년에 佛祖三經이 동시에 간행된 후 兩寺

36) 尹炳泰 編, 前掲書, p. 97.

37) 上掲書, p. 107.

38)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韓國민족문화대백과사전, 14(城南: 同研究院 1994), p. 237.

로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海印寺에는 《緇門警訓》上卷의 (5/6면), 下卷의 (47/48면), (59/60면), 下卷의 (77면/序)에 해당하는 4판³⁹⁾만이 보관되어 있는 반면에, 甲寺에는 이 부분이 缺板된 상태로 1614년 雙溪寺에서 간행한 《緇門警訓》 76판이 있어, 이를 서로 합쳐야 完板이 된다.

海印寺에 있는 간행미상의 《佛說北斗七星延命經變相圖》 1판 4장은 完板⁴⁰⁾으로 보지만, 甲寺에 보관되어 있는 1580년의 雙溪寺板《北斗七星供養文》 2판과 대조하면 板心題의 ‘北斗’ 및 板式이 같아 동일한 종류의 冊板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 역시 1580년에 雙溪寺에서 간행된 것이 海印寺와 甲寺로 나뉘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1634년에 雙溪寺에서 重刊한 《五大眞言》⁴¹⁾ 57판이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59/60면)과 (63/64면)이 새겨진 2판은 補刻板이므로 雙溪寺에서 옮겨와 補修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甲寺에는 (63/64면)이 새겨진 《五大眞言》 1판이 있어, 이들을 비교하면 板의 크기, 板式, 서체 등이 같아 동종의 책판이 兩寺에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板은 판각에 있어 실제적인 일을 담당하는 助緣, 刻手, 鍊板, 供養主를 빼고는 모두 민간인의 시주로 완성되었다.

海印寺의 《拘子無佛性話揀病論》은 (117/118)면이 새겨진 1판뿐이지만 板心題가 ‘書狀揀病’으로 되어 있어 《大慈書狀》과 合刊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大慈書狀》에 《拘子無佛性話揀病論》을 合편하고 있는 것은 1604년의 能仁庵板⁴²⁾에서도 볼 수 있다. 1566년 雙溪寺에서 간행한 《大慈普覺禪師書》는 (117/118)면을 포함한 3판이 缺板⁴³⁾된 상태로 甲寺에 소장되어 있어 동일한 雙溪寺板이 나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妙法蓮華經(1660)》은 卷一의 末에 ‘順治庚子(1660)二月日 恩津雙溪寺 重刊’이라는 간기가 있고, 卷三의 末에 ‘萬曆元年歲在癸酉(1573)仲春日 忠淸道 舒川南面雞山 趙貴唱 丁瓦屎家開 移傳恩津地佛明山 雙溪寺留板’이라는 간기가 있어 萬曆板을 다시 重刊

39) 朴相國, 前掲書, p. 407.

40) 上掲書, p. 420.

41) 同書, 刊記. 崇禎七年甲戌(1634)八月日 公淸道恩津地 佛明山 雙溪寺 重刊

42) 李智冠, 韓國佛敎所依經典研究(서울: 加山文庫, 1993), p. 84.

43) 朴相國, 前掲書, p. 177.

한 것을 알 수 있다. 1660년판의 重刊者인 義明은 전 해에 重刊한 刊記板(書名 未詳)의 刻手로 활동하였으며, 卷三의 末에 기재된 鍊板者 印正과 幹善大化主 省熙는 1571년 《佛說四十二章經》 및 1572년에 《禪宗永嘉集(說誼)》 간행에도 동일한 역할로 참여하였다. 甲寺에 보관된 卷六의 22장에 해당하는 《妙法蓮華經》 1판⁴⁴⁾은 이것의 散板으로 추정된다.

海印寺의 《佛說大報父母恩重經附胎骨經大小涅槃經》은 1면에서 18면까지는 《佛說大報父母恩重經》, 19면에서 24면까지 《佛說父母恩重胎骨經》, 27면에서 28면은 《佛說大涅槃經》으로 이루어져 있다. 37면에 새겨진 刊記에 의해 1681년에 雙溪寺에서 開刊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原刊本을 그대로 重刊한 까닭에 면수가 29면이어야 할 것을 잘못새긴 것⁴⁵⁾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간기판은 甲寺에 보관된 《부모은중경》 언해본 (33/34면), (35/36면)의 2판과 형식도 같고 면수도 연결되므로 《佛說大報父母恩重經附胎骨經大小涅槃經》의 간기판이 아니라 甲寺에 소장된 《부모은중경》의 간기판으로 추정된다.

또한 海印寺에서 1694년에 복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卷1은 옛판의 중복판 일부와 함께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데 반하여, 甲寺에는 1571년에 판각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卷2만을 보관하고 있어, 1巻과 2巻이 두개의 寺刹로 나뉘어 분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變相圖》 2판 4장이 있는데 어느 經에 속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大化主 省熙’라는 기록이 있다. 省熙는 1571년 《佛說四十二章經》과 1572년 《禪宗永嘉集(說誼)》 간행시 化主이므로, 이 《變相圖》 역시 1570년 전후에 雙溪寺에서 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板心題가 ‘年号’이고 ‘崇禎八年乙亥(1635) 二月日 公清道恩津双溪 重刊’의 간기와 간행 참여자가 기록된 1판이 있는데, 동일한 간기의 간본이 밝혀지지 않아 어떤 책의 卷末 《刊記板》 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들 책판이 옮겨진 시기를 肅宗初年頃⁴⁶⁾으로 보는데, 이는 肅宗 7년(1681)에 간행된 경판까지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한 것 같다. 그러나 雙溪寺板은 海印寺 의

44) 上掲書, p. 180.

45) 藤田亮策, 前掲論文, p. 164.

46) 藤田亮策, 前掲論文, p. 270.

에 公州의 甲寺에 《高峰和尚禪要(1565)》 《大慈普聞禪師書(1566)》 《佛說大報父母恩重經(1567)》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陀羅尼(1569)》 《北斗七星供養文(1580)》 《緇門警訓(1614)》 《月印釋譜(1569)》의 冊板이 보관되어 있다.⁴⁷⁾ 그러므로 雙溪寺板 중 1571년 이전의 板은 甲寺에, 1571년부터 1574년까지의 板은 海印寺에, 1580년판은 甲寺에, 1614년 板은 양 사찰에, 1614년 이후의 景판은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어 일정 기간까지 소장하고 있던 景판을 어느 한 사찰로 모두 옮기고, 그 후 다시 雕造된 것을 소장하다가 다른 한 사찰로 옮긴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月印釋譜》는 1936년경에 당시 甲寺의 住持 朴錦潭이 雙溪寺에서 책판을 소홀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甲寺로 옮겨 놓은 것⁴⁸⁾이고, 海印寺의 것은 1895년경 慈悲老匠이 移安한 것⁴⁹⁾으로 밝혀져 있다.

12. 圓寂寺

圓寂寺는 慶尙北道 聞慶郡 籠巖面 淸華山에 있는 절로 金龍寺의 末寺이다. 新羅 武烈王 7년(660)에 元曉大師가 開山하고 朝鮮 高宗 22년(1885) 石橋普沼禪師가 중건하였으며 圓寂庵이라고도 한다.⁵⁰⁾

圓寂寺板은 《禪宗唯心訣》과 《禮念彌陀道場懺法》 2종이 있다. 光海君 1년(1609)에 간행한 《禪宗唯心訣》은 鳳棲寺에서 1500년에 간행한 《禪宗唯心訣》을 覆刻한 것으로 慈悲老匠이 海印寺로 옮겨 놓은 것⁵¹⁾이다. 慈悲老匠은 雙溪寺에서 간행된 각 經板을 1895년경 海印寺로 옮긴 스님⁵²⁾이므로 이 책판도 이 시기를 즈음하여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 해인 1610년에 覆刻한 《禮念彌陀道場懺法》은 仁同의 長壽佛堂에서 開刊하여 聞慶의 圓寂庵에 두었던 經板⁵²⁾으로 佛家에서 승들이 받들어 모시고 奉行하는 것인

47) 朴相國, 前掲書, pp. 176-182.

48) 趙文瀟, “鷄籠山 甲寺 所藏 月印釋譜 卷21 雙溪寺 板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21호(1959. 2), p. 189.

49) 崔凡述, 前掲論文, p. 41.

50) 權相老 編, 前掲書, p. 915.

51) 崔凡述, 前掲論文, p. 59.에 禪宗唯心釋訣의 誤記 ‘慈悲老匠移運’이라 되어있다.

52) 同書, 卷五 末 刊記, 萬曆三十八年庚戌(1610) 閏三月日 慶尙道 仁同地 留鶴山 長壽佛堂開刊後 移置于聞慶 華山 圓寂庵

데 大字로 된 것만 있어 몸에 지니고 다닐 수가 없으므로 小本을 구하여 간행한 것⁵³⁾이다.

圓寂寺는 1605년에 《法語》와 《禪家龜鑑》을 간행⁵⁴⁾하였으나 經板의 소재는 알 수 없고, 17세기 초에 禪宗에 관한 책을 주로 간행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13. 星山 雙溪寺

星山 雙溪寺는 慶尙北道 星州郡 修道山에 있던 사찰로, 英祖 18년(1742)에 開刊한 《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과 이와 함께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佛說阿彌陀經》이 있다.

《佛說阿彌陀經》은 제1장이 《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23장 뒷면에 새겨져 있고, 제5장이 《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跋의 뒷면에 새겨져 있으며, 板式이 동일하고, 欄外에 기록된 '印軒, 智性, 郭玉珪, 李振昌, 西祥, 時應, 西悅' 등의 시주자가 《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의 권말에 모두 大施主로 기록되어 있어 同寺에서 함께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권말에는 《眞言陀羅尼》가 부가되어 있다.

星山의 雙溪寺에서는 현재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 경판이외에 孝宗 6년(1655)에 《妙法蓮華經》을 조성하였고⁵⁵⁾, 正祖 8년(1784) 7월에는 雙溪寺 修道菴에서 《秘密教集》⁵⁶⁾을 開刊한 적이 있다. 純祖 33년(1833) 4월에는 이 절에서 간행한 《佛說天地八陽神呪經》을 佛靈山 修道毘盧殿에 奉安⁵⁷⁾하였다.

14. 興律寺

興律寺는 黃海道 信川郡 文化縣의 九月山에 있는 절로 《梵字攷》에는 興律寺로,

53) 同書, 卷十, 跋 ... 第根舊本字大卷重 未能持身也 於是乎道人學雲 大檀 禹增 嘉方 世貞等 共并金石之志 願免 頭流小本 以歸 竭運家世之財 便集良工 不期年而鑄板印時貽 厥當來眼目夫人天固已偉矣 ... 時 萬曆四年著 龍丙子 孟秋丙申壬辰日 龍城沙門 默齋 謹跋

54) 尹炳泰 編, 前掲書, p. 69.

55) 尹炳泰 編, 前掲書, p. 81.

56) 同書, 刊記. 乾隆四十九年(1784)甲辰七月日 慶尙右道星州牧 西佛靈山 雙溪寺修道菴 開刊

57) 尹炳泰 編, 前掲書, p. 135.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興栗寺⁵⁸⁾로 되어 있다.

英祖 41년(1765)에 開刊한 《大彌陀儀略抄要覽普勸念佛文》의 경판이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책은 諺文解가 되어 있으며 책의 간기에 간행 참여자로 興律三綱과 月精三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이 독특하다. 月精寺도 九月山에 있는 절이다.

海印寺로 옮겨진 경판 이외에 孝宗 7년(1656) 4월에 《妙法蓮華經》이 간행되어 興律寺에 留板된 사실이 있다.⁵⁹⁾

15. 淨願社

淨願社가 소재지는 알 수 없으나 19세기 후반에 들어 수종의 서적을 출판하였으며 이 중 《西舫彙征》과 《淨土紺珠》板이 海印寺에 보존되어 있다.

《西舫彙征》은 淸의 瑞璋이 1879년 편집한 것인데 卷一은 1881년 9월에, 卷二는 11월에 板刻하였다. 제1권은 쫓나라 때부터 淸에 이르기까지의 유명한 中國과 印度 승려들의 이야기, 제2권은 속세에 살았던 불교도들의 이야기와 부처를 믿고 구원받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 2판이 缺板된 66판이 있다.

《淨土紺珠》는 虛舟 德眞이 1880년에 편집한 것으로 《大寶積經》 《大阿彌陀經》 《阿彌陀經》 《無量壽經》 등 45종의 책에서 淨土法門에 관한 句語 중 ‘數’가 속해 있는 것을 뽑아 그 문구와 출처를 밝혀주고 있다. 高宗 19년(1882) 1월에 淨願社에서 開刊하여 奉恩寺에 留鑱⁶⁰⁾한 이 경판이 어떠한 연유로 海印寺로 옮겨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2판이 결판인 54판이 있다.

淨願社는 海印寺 소장 경판외에 高宗 7년(1870) 8월에 《清珠集》을 活印하였으며⁶¹⁾ 동왕 18년(1881) 3월에 《佛說大阿彌陀經》을 간행하였고, 다음 해인 1882년 4월에는 《佛說阿彌陀經》을 간행⁶²⁾하기도 하였다.

58) 新增東國輿地勝覽, 卷四十二 文化縣 佛宇條.

59) 尹炳泰 編, 前掲書, p. 81.

60) 同書, 刊記. 光緒八年壬午(1882)孟春 淨願社開刊 留鑱于奉恩寺

61) 尹炳泰 編, 前掲書, p. 143.

62) 上掲書, p. 146.

16. 蓮寺

蓮寺의 소재지는 알 수 없으나 《佛說阿彌陀經》의 권말에 '光武九年乙巳(1905) 三月 日 蓮寺 刊板'의 간기와 시주자로 보이는 민간인 시주자 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佛說阿彌陀經》과 《淨土往生記》를 합편한 諺解本이다.

17. 甘露社

《如意珠塔(三品臺)》와 《塔形金剛經(眞面)》 각 1판씩 2종이 海印寺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들은 '甘露社藏印'이라는 표기만 있을 뿐이라, 甘露社의 소재지와 이들의 개판 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甘露社라는 同名의 사찰 중 서적을 간행한 사찰은 다음의 두 곳이 있다.

金海의 神魚山에 위치한 甘露社는 仁祖 24년(1646) 7월에 《妙法蓮華經》을 開板하였고⁶³⁾ 肅宗 42년(1716)에는 《觀世音菩薩靈驗略抄》를 開刊하여 梵魚寺에 移置하였다.⁶⁴⁾ 현재 梵魚寺에 《觀世音菩薩靈驗略抄大悲心陀羅尼》⁶⁵⁾ 7板이 있지만 간기가 없어 甘露寺에서 옮긴 經板인지는 확실치 않다. 또한 英祖 44년(1768)에는 槩冠의 文集인 《龍潭集》을 開板하였다.⁶⁶⁾ 또 다른 甘露社는 19세기 후반에 全史字로 된 활자와 목판본을 주로 간행한 곳으로, 高宗 19년(1882) 2월에는 淸의 葆光居士가 述한 《甘露法會》를 全史字로 刊行⁶⁷⁾하였고, 3월에는 《蓮芳詩選》⁶⁸⁾ 8월에는 鄭氏廣度華의 施資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⁶⁹⁾을 開板하였다. 다음 해인 高宗 20년(1883) 7월에는 全史字로 《法海寶筏》과 《摩訶般若波羅密多心經》을 應正智의 施資로 印行하였고,⁷⁰⁾ 隆熙 2년(1908) 5월에는 西賓精舍에서 《觀世音菩薩六字大明王陀羅尼神呪經》을 開刊하여 甘露社에 藏板하였다.⁷¹⁾

63) 上揭書, p. 79.

64) 啓明大學校中央圖書館, 古書目錄(서울: 同館, 1987), p. 98.

65) 朴相國, 前揭書, p. 315.

66) 東國大學校中央圖書館, 古書目錄(서울: 同館, 1981), p. 259.

67) 서울大學校奎章閣, 前揭書, p. 1308.

68) 尹炳泰 編, 前揭書, p. 146.

69) 서울大學校奎章閣, 前揭書, p. 1317.

70) 尹炳泰 編, 前揭書, p. 147.

두 사찰 중 지리적인 위치와 다음 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金海郡 神魚山 靈龜庵의 책판이 海印寺로 옮겨진 것도 있어 전자의 甘露社板일 것으로 추정된다.

18. 靈龜庵

靈龜庵은 金海郡 神魚山에 소재한 사찰로 梵魚寺의 末寺⁷¹⁾이다.

1959년에 靈龜庵에서 開刊한 《金剛般若波羅密經》은 弘經藏六이 글씨를 쓰고 處士 金抱雲이 板刻한 것이다. 이것은 海印寺에 보관된 책판 중 가장 최근에 새겨진 판이며, 15판 모두가 國板殿에 보관되어 있다. 海印寺板閣으로 移藏한 시기는 1960년 3월이다.⁷²⁾

다른 寺刹에서 판각된 후 海印寺로 이관된 寺刹板을 종합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들은 海印寺 인근의 鳳栖寺, 下距寺, 石水菴, 月光寺뿐만 아니라 慶尙道の 達成 仁興社, 咸陽 長壽寺, 聞慶 圓寂寺, 星州 雙溪寺, 金海 靈龜庵 및 忠清道 恩津 雙溪寺, 京畿道の 靈通寺, 道成庵, 黃海道 興律寺에 이르기까지 지리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널리 분포되어 고려시대 6개 사찰판 10종과 조선시대 9개 사찰판 26종, 그 이후에 판각한 2개 사찰판 2종 및 판각년 미상판 2종으로 총 18개 寺刹에서 板刻한 40종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 新荷寺, 群生寺, 淨願社, 蓮寺, 甘露社 등은 정확한 사찰의 위치를 알 수 없지만 長壽寺, 恩津 雙溪寺, 圓寂寺, 靈龜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폐사가 된 상태이므로 開板寺刹의 황폐화에 따른 판각처의 보존능력 결여로 인하여 海印寺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사찰판이 옮겨진 시기도 恩津 雙溪寺板과 圓寂寺板이 19세기 末, 靈龜庵板이 20세기 중반으로 밝혀졌을 뿐 나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鳳栖寺板, 圓寂寺板과 같이 海印寺에 藏板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해당 사찰에서 개판한 경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雙溪寺板과 같이 9종의 板이 甲寺와 海印寺에 散板의 상태로 분산된 것도 있다. 그러므로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散板이나 殘板들이 完板의 상태에서 보관 중 逸失되었기 보다는 이전 당시부터

71) 上揭書, p. 156

72) 權相老 編, 前揭書, 下, p. 975.

73) 李智冠, 前揭書, p. 261.

殘板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雙溪寺板《妙法蓮華經》，鳳棲寺板과 圓寂寺板《禪宗唯心訣》，靈龜庵板《金剛般若波羅密經》，蓮寺板《佛說阿彌陀經》 등은 동일한 종류의 경판이 海印寺에 중복되어 있으므로 海印寺에서 필요한 서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경판을 수집한 것은 아닌 듯하다.

〈표 1〉 寺刹板의 板刻處와 刊年

板刻處	書名 및 刊年
群生寺	金剛般若波羅密經(1214)
下鋸寺	大方廣佛華嚴經疏如來出現品(1241) 大方廣佛華嚴經隋疏演義鈔如來出現品[1241]
新荷寺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278)
仁興社	妙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1275) 歷代王朝年表(1278) 人天寶鑑(1290) 大悲心陀羅尼經(1293)
靈通寺	大方廣佛華嚴經觀音知識品(1331)
月光寺	三十八分功德疏經(1331)
道成庵	妙法蓮華經跋(1469)
石水菴	禪宗永嘉集(1499)
鳳栖寺	牧牛子修心訣(1500) 蒙山和尚法語(1500) 賢首諸乘法數(1500) 禪宗唯心訣(1500) 高峯和尚禪要(1501)
長壽寺	禪宗永嘉集(1520)
雙溪寺	拘子無佛性話揀病論[1566] 變相圖[1570년경]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4) 佛說北斗七星延命經變相圖[1580] 景德傳燈錄(1614) 緇門警訓(1614) 五大真言(1634) 刊記板(1635) 妙法蓮華經(1660) 佛說大報父母恩重經附胎骨經 大小涅槃經(1681) 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1742) 佛說阿彌陀經(1742)
圓寂寺	禪宗唯心訣(1609) 禮念彌陀道場儀法(1610)
雙溪寺(星山)	大方廣佛華嚴經入佛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1742) 佛說阿彌陀經(1742)
興律寺	大彌陀懺略抄要覽普勸念佛文(1765)
淨願社	西勸業征(1881) 淨土紺珠(1882)
蓮寺	佛說阿彌陀經(1905)
甘露社	如意珠塔(三品臺) 塔形金剛經
靈龜庵	金剛般若波羅密經(1959)

Ⅲ. 官 板

1. 鷄林府

《白花道場發願文略解》⁷⁴⁾는 忠肅王 15년(1328)에 體元이 海印寺에서 集解하고, 覺華寺住持 性之가 校勘하여 1334년에 鷄林府에서 開板한 것으로 20판 중 현재 14판이 남아 있으며 補刻板 3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은 序에 義湘의 略傳이 있고, 題名, 본문과 그 釋文, 卷末에 體元의 識語로 구성되어 있다. 義湘이 觀世音의 보살행과 보살도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여 白花道場에 受生함을 발원한 것을 體元이 淨土로의 중생구제라는 현실적, 실천적 관음신앙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는 上下 각각 38·34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28년에 體元이 貞元本 華嚴經의 卷十六에 澄觀의 疏를 붙이고 略解를 한 것이다.

이 책은 體元의 家兄으로 불리는 忍源과 同學의 우애에 보답하고, 또 위로는 부처의 玄福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萬類에 법을 널리 펴기 위하여 이 책을 집해, 간행한 것으로, 저술시기와 校勘者가 《白花道場發願文略解》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인 1330년대 초반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인 1335년에 鷄林府에서 《達摩大師觀心論》⁷⁵⁾을 開板하였는데, 경판의 행방은 알 수 없지만, 간행 참여자 중 刻手僧 浦英, 色記官 崔汴, 鷄林府 權知尹承奉郎 都官佑郎 知蔚州事 盧愼 등은 《白花道場發願文略解》 간행에도 참여하였다.

2. 刊經都監

刊經都監은 世祖 7년(1461) 6월에 창설되어 成宗 2년(1471) 12월에 혁파된 기구로서

74) 同書, 刊記… 致和元年戊辰(1328)十月在海印山寺集解 後學沙彌木庵體元 誌
覺華寺住持比丘性之校勘 / 元統二年甲戌(1334)七月日鷄林府開板 / 同願刻手僧 浦英 / 色記官 崔汴 / 別色前副戶長 李奇 / 同願 秀才金神器書 / 同願 東泉社道人善珣 / 鷄林府權知尹承奉郎都官佑郎知蔚州事兼權□農□使 盧□□

75) 서울大學校奎章閣 編, 前掲書, 下卷, p. 1314. 元統二年甲戌(1334)七月日 鷄林府開板

大藏經板 이외의 佛典들을 蒐集, 雕造, 摹印하였으며 藏經 및 藏外佛典들의 國譯刊行 事業을 하였다. 현재까지 刊經都監에서 간행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국역간행된 것이 10여종, 그 외의 간행본이 25종 정도인데, 本司에서 雕造한 것과 開城府, 安東府, 全州府, 南原府, 尙州牧, 晉州牧 등에서 雕造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볼 때 高麗의 大藏都監 운영을 본따서 地方의 府牧을 각 分司로 삼아 판각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⁷⁶⁾

현재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 《俱舍論頌疏鈔》《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石門洪覺範林間錄》 3종은 刊經都監의 명을 받아 晉州牧, 尙州牧, 安東府에서 판각한 것으로 모두 續藏系列의 漢譯本이다.

《俱舍論頌疏抄(1462,1463)》 卷一은 晉州에서 雕造하고 卷二부터 卷八까지는 尙州牧에서 雕造하였으며, 卷一과 卷二是 1463년에 雕造한 반면에 卷三부터 마지막권인 卷八까지는 이보다 한 해 앞서 1462년에 雕造한 것이다.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1461,1463)》는 1462년에 安東府에서 卷七만 雕造하였고 그 외는 모두 尙州牧에서 雕造하였다. 卷二가 가장 빠른 1461년에 雕造되었으며, 卷三부터 卷十三까지는 1462년에, 卷一과 마지막 卷인 卷十四는 가장 늦은 1463년에 雕造되었다.

《石門洪覺範林間錄》은 1468년에 尙州에서 重修한 것인데 新舊板이 混合되어 광곽의 크기가 세가지 유형이라 본래의 책판을 1468년에 重修한 것인지 아니면 1468년에 雕造한 것을 그 후에 補刻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이 책은 洪州 石門寺의 德洪(字 覺範)이 지은 것으로 宿德의 苦行, 林의 遺訓, 薩의 微旨, 賢大夫의 余論 등 參禪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은 것이다.

이와같이 慶尙道 지역에서 판각한 刊經都監板들은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지만 安東府에서 1462년에 雕造한 《瑜伽論疏》의 소재는 알 수 없다. 다른 刊經都監板이 모두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海印寺로 이전한 후 逸失된 것 같지는 않고, 같은 해 安東府에서 雕造한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 卷七의 책판만이 海印寺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76) 千惠鳳, 韓國典籍印刷史(서울: 汎友社, 1990), pp. 140-150.

3. 達成館

《久堂先生集》은 久堂 朴長遠(1612~1671)의 詩文集으로 著者の 曾孫 朴文秀가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慶尙道 觀察使로 재직중이던 1730년에 大邱에서 간행한 것으로, 總目末에 ‘庚戌四月日 達成館開刊 海印寺藏板’의 간기가 있다. 이 판은 原集 20卷 附錄 4卷의 970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상의 官板을 종합하면 <표 2>와 같다. 이들 외에 鄭晏의 分司都監板 등도 散板으로 옮겨진 것들이 있을 것이나 간기가 없고 본고의 범위 밖이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官板 중 高麗時代의 것은 鷄林府에서 판각한 1종과 이와 함께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1종이며, 朝鮮時代의 것은 刊經都監의 地方分司인 晉州牧, 尙州牧, 安東府에서 나누어 판각한 3종과 達成館에서 開刊한 文集板 1종으로 총 5개 지방관서에서 판각한 6종임을 알 수 있다.

鷄林府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판한 《達摩大師觀心論》의 행방을 알 수 없고, 朝鮮時代의 刊經都監의 地方分司인 晉州牧, 尙州牧, 安東府에서 판각한 것들 중 安東府에서 함께 雕造한 《瑜伽論疏》도 경판이 없는 것을 보면 해당관서에서 판각후 일정기간 보관하다 海印寺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官板의 板刻處와 刊年

板刻處	書名 및 刊年
鷄林府	白花道場發願文略解(1334) 華嚴經觀自在菩薩所說法門別行疏[1334]
刊經 都監	晉州牧 俱舍論頌疏抄卷一(1463)
	安東府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卷七(1462)
	尙州牧 四分律刪繁補闕行事鈔詳集記卷一-卷十四(卷七 제외)(1461-1463) 俱舍論頌疏抄卷二 - 卷八(1462,1463) 石門洪覺範林間錄(1468)
達成館	久堂先生集(1730)

IV. 私 家 板

1. 李勝光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⁷⁷⁾은 高宗 22년(1235)에 鹿鳴鄉前長 李勝光이 간행한 것으로 戒環의 首楞嚴經에 略解를 하고, 卷首에 科判을 두고 天台의 五時判에서부터 他說을 비판한 宋板本의 覆刻本으로 補刻板이 4매 있다.

2. 鄭晏

1236년에 간행한 《妙法蓮華經》, 1245년에 간행한 《華嚴經普賢行願品》과 《金剛般若波羅密經》, 1246년에 간행한 《佛說預修十王生七經》 4종은 모두 鄭晏이 崔瑀의 祝壽와 萬壽無疆을 기원하기 위하여 간행한 것으로 分司都監과 관계가 있다

《華嚴經普賢行願品》과 《金剛般若波羅密經》은 동시에 간행된 것으로 형식도 유사하며, 《妙法蓮華經(1236)》은 重複板 2매, 補刻板이 1매 있으며 《金剛般若波羅密經(1245)》은 2매의 補刻板이 있어 여러번 印行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의 원제목은 《佛說閻羅王授記四衆逆修生七往生淨土經》이며 줄여서 《十王生七經》 《十王經》이라고 부른다. 이 경은 공양자가 매월 2회씩 공양하고 시왕에게 재를 설치하면 극락에서 살게 될 것이며 이 경을 독송하면 閻羅大王이 그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옥에서 구제해 준다⁷⁸⁾고 현세에서의 죄를 속죄하는 종교적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偽經의 일종으로 雜板중에 이것과는 다른 2종이 더 있어 高麗末期의 因果思想과 地獄信仰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다.

3. 崔瑀

《金剛般若波羅密經》⁷⁹⁾은 鳩摩羅什이 譯한 것으로, 高宗 24년(1237)에 당시의 실권

77) 同書, 末 時乙未七月日謹誌 / 財主鹿鳴鄉前長李勝光 / 同願道人等 克圓 了非

78) 金延福, 조선시대지장시왕도연구(서울 : 一志社, 1996), pp. 101-102.

자였던 崔瑀가 發願하여 大字大板의 16판으로 개판한 것이다. 또한 海印寺에 소장된 散板중에는 晉陽公 崔瑀의 壽福을 위하여 開板된 것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된다.⁸⁰⁾

4. 朴隨

1251년에 東京副留守 朴隨가 간행한 《佛說阿彌陀經》⁸¹⁾은 본래 2판 4매의 折本式으로 되어 있던 것인데 (1/2)장에 해당하는 1판을 逸失하여 朝鮮末頃에 2판으로 補刻하였다. 이 책은 釋迦世尊이 祇園精舍에서 舍利佛에게 阿彌陀佛의 莊嚴함을 說한 내용을 담고 있다.

5. 李榮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⁸²⁾은 《周本華嚴經 第一 世主妙嚴品》에서 毗盧遮那佛, 菩薩, 主神 등의 이름을 발취하여 열거한 것으로 《華嚴神衆》이라고도 한다.

권말에 기록된 順安은 현재의 慶尙道 榮州를 말하는 것으로 高麗 高宗 46년(1259)에 金仁俊의 출생지이므로 知榮州事로 승격하였다. 또한 誌에 나오는 清河相國은 高宗 40년(1253)전에 사용된 이름이며, 《高麗史》 高宗 世家에 의하면 高宗 23년, 39년, 44년에 각 지역에 山城防護別監을 파견하였으므로 이 책판은 高宗 40년 이전에서 高宗 37, 38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⁸³⁾

6. 豆永貞

1571년 益山の 豆永貞家에서 開刻하여 雙溪寺에 두었던 《佛說四十二章經》⁸⁴⁾은

79) 同書, 末, 守大傳門下待中上柱國上將軍判御史台事晉陽侯崔瑀 特發弘願以大字金剛般若經 雕板流通 所冀隣兵不起 國祚中興 延及法界有情 俱霑勝利 破諸有相共誌真空 時丁酉(1237)十二月 日 謹誌

80) 千惠鳳, 前掲書, p. 90.

81) 同書, 刊記, 申亥(1251)四月日 刻手道人(?)安 東京副留守管勾事試禮賓少卿 朴隨

82) 同書, 卷末, 伏爲 聖祚天長 清河相國 壽祿延弘... 諱山人志閑 經寫華嚴神衆 募工雕板者 十二月 日 誌/順安山城 防護別監 同縣令 典威衛攝散員 李榮

83) 藤田亮策, 前掲論文, pp. 61-62.

84) 隆慶五年辛未(1571)六月日 全羅道 益山地豆叱材 豆永貞家開刻 移傳忠清道 恩津地仏明山 双溪寺在置

《佛遺教經》《僞山警策》 3종이 함께 간행되어 《佛說四十二章經》과 《佛遺教經》만이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음을 앞에서 밝혔다. 《佛說四十二章經》의 권말에 기록된 鍊板大施主 2명, 鍊板 1명, 刻手 4명, 化士 1명은 모두 승려이고, 供養大施主 10명은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豆永貞家에서 주관하고 여러명의 경비로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施主者 중에 포함된 白介萬兩主는 寶物 제 582호로 지정되어 현재 甲寺에 보관되어 있는 《月印釋譜》⁸⁵⁾를 1569년에 校刻하여 雙溪寺로 이전한 사람이다.

7. 金論番

林川의 金論番이 1572년에 판각하여 雙溪寺에 두었던 《禪宗永嘉集(說誼)》⁸⁶⁾은 시주자 41명과 大施主 1명, 鍊板大施主 2명, 供養主 11명은 일반인이지만 刻手秩의 3명, 鍊板 1명은 승려가 많고 있으며, 化主 역시 승려인 것으로 보아 金論番家에서 판각의 경비를 부담하고 실제적인 판각은 雙溪寺의 승려들이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 沈德祖

《峴隱先生稿》는 宣祖 때 工曹佐郎 李養健(1533~1621)의 文集으로 世孫 李厚源이 編輯하여 孝宗10年(1659)에 沈德祖가 達成府尹에 부임하였을 때 印行한 것으로 추정⁸⁷⁾하는데 李厚源의 跋文 末尾에 ‘維歲己卯季刻商山’의 小字가 있으므로 이 해에 尙州에서 판각된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 己卯는 己亥의 誤刻인 것 같다.

이 冊板은 173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冊板置簿冊》의 大邱條에 ‘板無’로 기록되어 있고, 1796년에 간행된 《鑲板考》에는 海印寺 所藏으로 되어 있다. 純祖朝에 엮은 《峴尙道邑誌》와 1815년의 《書冊目錄》에는 尙州에, 1840년에 작성된 《各道冊板目錄》에는 陝川에 소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冊板은 처음에 尙州에서 板刻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海印寺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85) 同書, 刊記, 陸慶三年己巳(1569)二月日 忠淸道 寒山地竹山里 白介萬家校刻 移轉 恩津地 佛明山 雙溪寺 留置.

86) 同書, 刊記, 陸慶六年壬辛(1572)二月日 林川土 金論番家刻 移于恩津土 雙溪寺留板

87) 藤田亮策, 前掲論文, p. 205.

9. 金景望

《竹陰集》은 竹陰 趙希逸(1575~1638)의 문집으로 耆耆의 아들 錫馨이 家藏草稿를 수집, 편찬한 것을 孫 泰仁縣監 景望이 金壽恒의 刪定을 거쳐 1681년 泰仁에서 木板으로 初刊한 하였다. 그 후 景望이 1684년 陝川郡守로 부임하면서 海印寺로 移置한 후 燒失되어, 1704년에 曾孫 江西縣令 正萬이 약간을 再編하여 江西縣에서 木板으로 重刊⁸⁸⁾하여 책판은 현존하지 않지만 그 이동경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각종 유가문집판의 경우 해인사에서 판각하고 보관하였다⁸⁹⁾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冊板置簿冊》에는 陝川과 泰仁 두 곳에 소장된 것으로 실려 있지만 泰仁에는 ‘冊’이라고 적혀 있어 옮겨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0. 趙顯命

《南溪先生文集》은 南溪 朴世采(1631~1695)의 文集으로 序跋 및 간기가 없다. 筵臣 李重協의 건의와 景宗의 간행지시에 따라 저자의 手稿本을 바탕으로 후손 弼傳가 편찬하고 門人 李世瑛이 교정한 후 慶尙道 觀察使 趙顯命이 1731년경 大邱監營에서 正集 87권, 外集 16권, 續集 22권의 5,024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冊板은 175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諸道冊板錄》에는 慶尙監營에 所藏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1759년경에 작성된 《完營冊板目錄》에는 ‘慶尙道營上’의 소장기록 하단에 ‘海印寺上 朴世采著’로 기록되어 있어, 1750년에서 1759년 사이에 海印寺로 책판이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11. 金陽澤

《竹泉集》은 예조판서를 지낸 竹泉 金鑣圭(1658~1704)의 詩文集으로 그의 아들 金陽澤이 1773년에 편집, 간행할 때 英祖가 奎章閣에 명하여 간행을 돕게 하고 친히 序

88) 圖書, 附錄 16張. 先人昔宰泰仁日 始得經梓 暨蒞陝川 移置于海印寺 蓋爲久遠計而不幸燬於回祿 不肖懼其傳布不廣 損擗鳩功 重刊于江西縣任所 前後剖關 傳籍官力 何莫非 國恩耶 崇禎後七十七年甲申仲春 不肖曾孫正萬 謹誌

89) 임지룡, 前揭論文, p. 252.

문을 지어 줘 英祖 4년(1773)에 金陽澤이 쓴 御製序文이 있으며, 3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판은 《冊板錄》⁹⁰⁾의 大邱本府 소장사항 아래 ‘白紙三十二束九張 在 龍淵寺’라 되어 있어 당시에는 龍淵寺에 소장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海印寺에는 1板뿐이고, 慶北大學校 도서관에 대부분이 소장되어 있다.

12. 靑泉集

《靑泉集》은 申維翰의 詩文集으로 1770년에 李瀾가 쓴 序文이 있으나 간행자와 간행년대는 미상이며 6권 3책으로 되어 있다. 《冊板錄》의 大邱本府 所藏에 ‘靑泉集移送陝川海印寺’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목록 작성전에 海印寺로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13. 淸虛集

《淸虛集》은 西山大師 淸虛休靜(1520~1604)의 詩文集으로 2판뿐인 殘板이라 간행년과 간행처는 미상이지만 板心에 ‘淸虛 上 十一’ 등이 있는 것을 보면 上·下 2권으로 되어 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1794년경에 刊刻된 것으로 추정⁹¹⁾하고 있지만 174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冊板置簿冊》에 이미 ‘大邱 所藏’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판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冊板置簿冊》 외의 다른 冊板目錄에는 大邱나 陝川 어느 지역에도 《淸虛集》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어느 시기에 海印寺로 옮긴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14. 韓德弼

韓泰東의 詩文集인 《是窩遺稿》는 그의 孫 韓德弼이 星山郡守로 있던 英祖 15년(1739)에 星山에서 鈔板하여 海印寺에 두었으며,⁹²⁾ 이것의 附錄인 《月嶽書疏附》 板도

90) 남권희 교수 소장본.

91) 藤田亮策, 前掲論文, p. 176.

92) 同書, 간기. 上之十五年己未 孫德弼 守星山 鈔板 藏于海印寺

함께 보관되어 있다.

《月嶽書疏附》는 韓泰東의 아들 祉가 편집한 것으로 권말의 '己未後二十五年癸未(1763) 子德—繼牧 星州追刊'의 기록에 의해 《是窩遺稿》刊板 25년 후인 1763년에 그의 아들 德一이 星州牧使로 있으면서 追刻한 것을 알 수 있다.

15. 金炳龍

永明延壽가 자신이 지은 心賦에 註釋한 《註心賦》132板, 明의 眞珮가 당시의 宋譯本 4권을 중심으로 魏譯과 唐譯을 좌우에 두고 대교하여 편집한 《楞伽阿跋多羅寶經會譯》191板, 元曉의 海東疏인 《大乘起信論疏記會本》75板은, 1920년대 경에 서울에 살던 金炳龍씨가 배나무에 새긴 경판을 당시 海印寺 方丈이던 性徹에게 기증한 것이다. 이를 1947년에 靑潭스님이 藏經殿에 移安하였다.⁹³⁾ 이들 3종은 간기는 없지만 私家板으로 추정되므로 여기에 들어두기로 한다.

이들 私家板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이들 중 經板은 고려시대에 鄭冕, 崔瑀 등이 發願하여 刊行한 8종, 朝鮮時代에 私刻하여 雙溪寺에 移置하였던 3종 및 20세기 초에 판각한 3종으로 총 14종이다. 그 외는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간행된 문집판 7종이다. 문집의 사가판은 저자의 자손 또는 문학생들이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할 때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행 참여자 및 판각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이 흔하다. 그러나 상술한 문집의 사가판들은 大邱府, 尙州牧, 泰仁縣, 龍淵寺 등에서 보관하다가 海印寺로 옮긴 것이 책판목록을 통하여 확인된 것들이기 때문에 타처에서 판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룬 것이다. 물론 이들 외에도 海印寺에 소장된 10여종의 문집판이 있지만 해인사에서 판각하였거란 판각처가 명확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93) 徐首生(1968), 前掲論文, p. 170.

〈표 3〉 私家板의 板刻處와 刊年

刊行者와 身分	書名 및 刊年
鹿鳴鄉前長 李勝光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1235)
鄭晏	妙法蓮華經(1236) 金剛般若波羅密經(1245) 華嚴經普賢行願品(1245) 佛說預修十王生七經(1246)
晉陽公 崔瑀	金剛般若波羅密經(1237)
東京副留守 朴隨	佛說阿彌陀經[1251]
順安山城 防護別監 李榮	大方廣佛華嚴經世主妙嚴品(1250년경)
豆永貞	佛說四十二章經(1571) 佛遺教經(1571)
金論番	禪宗永嘉集(說誼)(1572)
達成府尹 沈德祖	峒隱先生稿(1659)
泰仁縣監 金景望	竹陰集(1681)
慶尙道觀察使 趙顯命	南溪先生文集(1731년경)
金陽澤	竹泉集(1773)
未詳	靑泉集(1770년경)
未詳	淸虛集
星山郡守 德弼韓, 韓祉	是窩遺稿(1739) 月嶽書疏附(1763)
金炳龍	註心賦 楞伽阿跋多羅寶經會譯 大乘起信論疏記會本

V. 結 論

海印寺에 소장된 경판 중 다른 곳에서 판각하여 海印寺로 이관한 것들을 대상으로 그 판각처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간기와 간행 참여자, 타처에 소장된 동일한 경판, 당시의 冊板目錄 등을 조사하여 板刻處別로 나누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寺刹板은 海印寺가 위치한 慶尙道는 물론 忠淸道, 黃海道, 京畿道, 서울 등에 소재한 18개 寺刹에서 板刻한 40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高麗時代 6개 사찰판 10종과 朝鮮時代 9개 사찰판 26종, 그 이후에 판각한 2개 사찰판 2종 및 판각년을 알 수 없는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官板은 高麗時代 鷄林府에서 판각한 2종, 朝鮮時代 刊經都監의 地方分司인

晉州, 尙州, 安東에서 판각한 3종과 達成館에서 판각한 1종으로 모두 6종이 있다. 이들 官板은 海印寺에 藏板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해당관에서 판각된 것들 중 행방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판각후 일정기간 판각처에서 보관하다 海印寺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私家板중 經板은 고려시대에 鄭晏, 體元, 崔瑀 등이 發願하여 刊行한 8종, 조선시대에 個人이 私刻하여 雙溪寺에 移置하였던 3종과 20세기 초에 판각한 3종으로 모두 14종이며, 文集板은 조선시대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간행한 7종으로 《淸虛集》을 제외하면 모두 儒家文集板이다.

네째, 海印寺에 있는 雙溪寺板 중 《緇門警訓》 등을 포함한 9종은 同種의 板이 甲寺와 海印寺에 무분별하게 분리되어 散板의 상태로 옮겨진 것이다. 그러므로 海印寺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散板이나 殘板들이 完板의 상태에서 보관 중 逸失되었기 보다는 이전 당시부터 殘板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책판목록의 조사를 통하여 《淸虛集》 《峒隱集》 《靑泉集》의 3종의 冊板은 大邱本府에, 《竹泉集》은 龍淵寺에, 《南溪集》의 冊板은 慶尙監營 大邱에 所藏하고 있다가 海印寺로 옮겨진 것임을 새롭게 밝혔다. 따라서 문집의 경우 寺刹의 간행기능을 이용한 주문생산뿐이 아니라 간행자의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 책판도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雙溪寺의 《妙法蓮華經》, 鳳樓寺와 圓寂寺의 《禪宗唯心訣》, 靈龜庵의 《金剛般若波羅密經》, 蓮寺의 《佛說阿彌陀經》 등은 동일한 종류의 경판이 이미 해인사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海印寺에서 필요한 서적을 인행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경판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판각당시부터 해인사에 보관하기로 계획된 文集板은 《久堂先生集》과 《是窩遺稿》 및 그 附錄인 《月嶽書疏附》 2종뿐이라 대다수의 문집판은 開板人의 이동 혹은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옮겨진 것으로 보이며, 사찰판은 海印寺로의 이전시기가 밝혀진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에 옮겨진 雙溪寺板, 圓寂寺板, 靈龜庵板 뿐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찰은 폐사가 된 상태이므로 開板寺刹의 황폐화에 따른 판각처의 보존능력 결여로 인하여 海印寺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곳에서 판각하여 海印寺로 옮겨 온 것들 중 간행기록이 없거나 글자의 마멸 및

훼손 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책판들이 있다. 이들 역시 그 판각처와 이동 시기 및 원인 등을 밝히는 지속적인 연구가 계속되어야 海印寺 경판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가 규명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the engraving place of wood printing plates in the Haeinsa(海印寺)

Kim, Young-Son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at the engraving place of wood-printing plates held in the Haein Temple(海印寺), which were famous for playing the significant role in the understanding of publishing activities of both the Koryo and Chosŏn Dynasty. Following the common way the bibliographic elements of the books were analyzed namely according to the the publication place and the publisher.

The findings derived from the analysis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Haeinsa the wood-printing plates books are preserved moved from 17 temples such as Bongsŏ-Sa(鳳栖寺), Hagŏ-Sa(下鋸寺), Sŏksuam(石水庵), Inhŭng-Sa(仁興社), Wonkwang-Sa(月光寺), Sinha-Sa(新荷寺), Gunsyaeng-Sa(群生寺), Jangsu-Sa(長壽寺), Yŏngtong-Sa(靈通寺), Wonjŏk-Sa(圓寂寺), Ŭnjin(恩津) SSanggye-Sa(雙溪寺), Sŏngsan(星山) SSanggye-Sa(雙溪寺), Hŭngyul-Sa(興律社), Jŏngwon-Sa(淨願寺), Yŏn-Sa(蓮寺), Gamro-Sa(甘露社), Yŏngguam(靈龜庵) besides the publications of temples, there are publications of local branches of gangyengdogam(刊經都監) such as Jinju(晉州), Sangju(尙州), Andong(安東), of local public agencies such as Gaelimbu(鷄林府), Dalsungwan(達成館), and of private families of which 8 titles in the Koryo Dynasty and 13 titles of the Chosŏn Dynasty.

Among the 「SSanggyae-Sa(雙溪寺) publication」 held in the Haeinsa, 9 titles including Chimungyŏnghun(緇門警訓) are recklesaly preserved with dividing both in Gap temple(甲寺) and in Haeinsa as the same publication. It is possible that

* Lecture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

other scattered present publications or remaining publications might have been remaining publication from those partly burnt ones of the complete publications.

By means of the investigation on the catalogs of publications, 5 titles such as 《Chŏnghŏjib(淸虛集)》 《Dongŭnjib(桐隱集)》 《Chŏngchŏnjib(靑泉集)》 《Jukchŏnjib(竹泉集)》 《Nangaejib(南溪集)》 which are now kept in the Haeinsa moved from the Taegubu(大邱府) or Yongyŏn-Sa(龍淵寺) were newly identified.